



##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효율적 구제방안’ 세미나 개최

###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세미나

최근 라돈침대, BMW 차량 화재 등 계속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고 예방과 효율적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11월 2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오전 세션에서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원 교수의 사회로 소비자자원 이승진 선임연구원이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정신동 선임연구원은 ‘차량화재사건으로 재조명해본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소비자자원 박희주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함영주 교수가 ‘공론화방식의 집단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충북대 법학연구소 이명민 전임연구원이 ‘소비자단체소송에서의 기업투자를 통한 손해배상제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향후 소비자원은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지역 연구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매년 공동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다.



## 찾아가는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및 이동상담 실시

### 양평군 · 기업과 함께 ‘상생과 나눔의 행사’도 열어

농업인과 고령자 등 사회배려계층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및 이동상담’이 11월 6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열렸다.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 양평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양평군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를 울리는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교육과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소비자 법률상담’등을 진행했다.

한편, 양평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는 협업 기업인 자동차 5개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와 가전 5개사(삼성, LG, 쿠쿠, 쿠첸, 풍년)가 자동차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자동차 석유 품질검사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해 지역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했다. LG생활건강은 ‘장수사진 촬영 서비스’를, 대한한회사협회는 ‘한방 진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지역 고령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매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자교육 및 이동상담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 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내년에도 산간·도서 지역 등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상생과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포용적 소비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서전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휴먼북' 행사 개최

12개 주제 묻고 답하며 지식과 정보 전달해

충북혁신도시 서전중학교 학생들과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만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11월 7일 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휴먼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권리', '소비자안전', '소비자원이 하는 일', '현명한 소비생활' 등 12개의 주제에 대해 학생들과 휴먼북이 직접 만나 묻고 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소비자문제에 대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미래의 소비자 전문가로 성장해주기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래의 주역인 지역 학생들과 교류의 장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휴먼북(리빙 라이브러리)'은 사람책 도서관으로, 덴마크 출신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에 의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시작됐음. 관련 지식, 경험을 가진 사람이 독자와 만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 등을 공유하는 시간(행사)을 말함.



## 한국소비자원, 41개 기업과 정례협의체 전체 워크숍 개최

기업 주도 소비자안전 확보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협업방향 등 논의

한국소비자원은 11월 21일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 기업, 관련 협회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사업자 정례협의체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년간의 협의체별 추진 과제 및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의체 상호 간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협의체는 노후 가전제품 대상 무상점검·수리,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해사례\*를 저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온라인 쇼핑물, TV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불량 제품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동 킥보드, 해외직구 화장품, 전기모기채 등 8,000여 개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490여 개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과 7개 협의체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시장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사업자 정례협의체는 한국소비자원과 7개 분야(대형가전, 대형마트, 위생용품, 자동차, 정수기, 통신판매중개업자, TV홈쇼핑) 41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는 ① 지속·다발하는 위해(危害)사례 저감(예시: 노후 가전 화재사고, 정수기 이물 발생), ② 다양한 유통채널에 산재된 불법·불량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을 위해 활동한다.